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 7절〉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공동체) 가운데, 서로 재정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만큼의 친밀감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생겼던 첫 번째 문제는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길 원했고, 그 사랑을 당시의 가장 힘든 사람들이었던 과부를 섬기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를 받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의 상황을 정확한 사실(펙트)를 기반으로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같은 예루살렘에 살았어도 헬라의 문화를 접했던 사람이라면, 요즘의 기준으로는 유학을 갔다 오거나, 혹은 남편이 유학을 했거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로 별다른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적어도 헬라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지체 없이 반응합니다.

1. 연한한 부분을 사람을 세워 동역하였습니다.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하고,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재정 사용 결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힘이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미련 없이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게 합니다.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맡은 일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일이 정말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잘 하는 사람을 세워서 위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을 알아보게도 하시고, 믿을 수 있게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경험하였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미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귀합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그러한 교회입니다.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7명의 사람들을 천거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고르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렵지 않게 7명을 뽑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려면, 그들을 알아보게도 하시고, 하나 되게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공동체(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공동체)는 이미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7명의 사람들도 귀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곧 교회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수준이 됨을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직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제목〉
1.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소서.
2.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